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김 호 정¹⁾ · 정 미 애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가족은 인간의 출생과 더불어 존재하는 일차적 집단이며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가족은 가족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적, 정서적, 영적, 신체적 및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며,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화를 시켜주는 훈련의 장으로 사회의 안정과 개인의 성장발달에 기초가 된다(송성자, 2000).

오늘날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가족 고유의 기능들이 약화되고 있다. 가족기능의 약화는 가족 내의 긴장과 갈등을 조장하여 이혼율의 증가, 가정폭력, 부모로서의 역할 포기 등과 같은 가족의 병리적 문제와 해체를 초래하고 있다(민동일, 양정미, 2006; 송성자, 2000).

가족 체계가 역기능적이거나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내적으로는 불안이나 우울, 적대감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더 경험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학교문제와 대인간의 갈등, 비행행동과 같은 사회적 부적응 행동, 자살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경애, 정민정, 2007; 김윤희, 1990; Barber & Erickson, 2001).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자살이다. 자살은 10대 사망률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통계청에 의하면

1998년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7위였던 자살사망률은 2008년 4위로, 불과 10년 동안 41.4%나 증가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0대와 20대의 자살사망률의 증가이다(통계청, 2008).

이들 대부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변화하는 청소년 시기로 신체적 성숙에 비해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불안정하여 외적인 자극에 민감하고 예민하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특히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자살생각이 많고, 이러한 자살생각이 성인으로 성장 후 정신사회적 기능 및 정신 기능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Steinhausen & Metzke, 2004) 청소년기에 대한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은 다른 시기보다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요인으로는 개인적인 성향과 그들이 속한 사회·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다(민윤기, 2005; 손정남, 2007). 이러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가족과의 상호관계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면 청소년은 모든 생활면에서 혼동과 심한 정서변화를 경험하여 부적응 문제를 표출하게 되는데,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김혜영, 김영희, 2002;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가족은 청소년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지자원으로(송성자, 2000)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혜경, 안옥희 및 김경희(2003)는 여러 가지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한 청소년이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도피하려는 수단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이러한 애매하고 예

주요어 :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자살생각

1) 안동과학대학 간호과 전임강사(교신처자 E-mail: rellakim@hanmail.net)

2) 동양대학교 보건진료소 간호사

투고일: 2010년 4월 5일 심사완료일 2010년 5월 24일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27일

측하기 어려운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잘 조직하고 효력이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Bandura, 1997) 불안감을 느끼거나 억압적이고 부담을 주는 상황을 극복하는 힘과 관련이 있다(Pajares, 1997). 또한 대처방식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하여(민소영, 정승교, 2006) 자살을 예방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자살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은 청소년후기에 해당하여 다른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환경으로의 급격한 전환점을 통해 미래의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주어짐으로서 복잡하고 혼란스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과 갈등으로 정신적 건강을 위협받거나 충동적인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민윤기, 2005;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그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Beck, Kovacs, & Weissman, 1979; Carris, Sheeber, & Howe, 1998; Kwok & Shek, 200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민윤기, 2005; 손정남, 2007; 이현지, 김명희, 2007). 또한 자살관련 요인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으나(박현숙, 구현영, 2009; 손정남, 2007; 정혜경 등, 2003)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 두 변수를 함께 설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비록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않지만,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생각이라도 자살시도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자살생각은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측지표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Beck et al., 1979)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자살에 대한 예측지표로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의 정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중재방안을 계획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지하는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자살생각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자살생각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자살생각의 관계를 파악한다.

용어 정의

●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가족 관계 속에서 체계의 완전함을 유지하고 가족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체계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가족의 행위 또는 역동성을 말한다. 가족기능은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을 의미한다. 가족응집력이란 가족성원들이 그들 가족과 분리되거나 연관되는 정도로, 가족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를 말하며, 가족적응력이란 가족체계가 유연하고 변화할 수 있는 정도로 가족체계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그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Olson, Russell, & Sprenkle, 1983; Olson, David, & Barnes, 1985). 본 연구에서는 Olson 등(1985)이 개발한 FACE(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III를 김윤희(1990)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계획한 성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Bandura, 1997) 본 연구에서는 Sherer와 Maddux(1982)가 개발한 도구를 최명희(2007)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전의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나 희망을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여 현재 지닌 의식적인 자살의도의 정도를 수량화하는 것이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를 이끌지는 않지만, 검사결과는 이후에 보일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언지표가 될 수 있고(Beck et al., 1979) 자살위험에 대한 임상가의 평정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어 검사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Beck 등(1979)이 개발한 자살생각척도 Scale for Suicidal Ideation(SSI)을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및 김중술(1990)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Y시에 소재한 일개 4년제 대학 24세 미만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협조와 동의를 받아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자는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취지와 응답을 원치 않은 경우는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준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수락하는 자들을 임의 표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81부 수거되었고 설문내용에 불충분하게 답한 총 12부를 제외한 569부를 연구결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설정하고 G 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을 때 권고한 표본수인 423명보다 많아 충족되었다.

연구 도구

●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Olson 등(1985)이 개발한 FACE(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III를 김윤희(1990)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FACE-III는 2개의 하위영역인 가족응집력 10개 항목(홀수항목)과 가족적응력 10개 항목(짝수항목)인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에 1점, '대체로 아니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며 총 점수는 20점에서 100점 까지 분포한다.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은 각 각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 분포하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좋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나쁨을 의미한다. Olson 등(198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검사결과 가족응집력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7, 가족적응력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62, 총 척도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68이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가족응집력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4, 가족적응력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4, 총 척도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이었다.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와 Maddux(1982)에 의해 개발된 일반적 자기효능척도를 수정 보완한 최명희(200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의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대체로 아니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총 점수는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최명희(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2이었다.

●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는 Beck 등(1979)이 개발한 자살생각척도 Scale for Suicidal Ideation(SSI)을 신민섭 등(1990)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SSI는 총 19문항의 3점 척도로 0~2점 까지 채점되며 총점은 0~38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욕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민섭 등(199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7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8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및 자살생각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및 자살생각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대학생 569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남학생이 337명(59.2%)으로 여학생 232명(40.8%)보다 많았고, 평균 연령은 20세 미만의 학생이 362명(63.6%)으로 21세 이상의 학생보다 많았다. 전공영역은 인문계가 212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53.5%가 종교를 갖고 있었으며, 대상자의 2.6%가 가족이나 친지 중에 자살한 가족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6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37	59.2
	Female	232	40.8
Age	Below 20	362	63.6
	Above 21	207	36.4
Major	Humanities	212	37.3
	Social sciences	100	17.6
	Natural science	15	2.6
	Engineering	193	33.9
	Life science	15	2.6
	Art and physical education	34	6.0
Religion	Yes	303	53.3
	No	266	46.7
Family history of suicide	Yes	15	2.6
	No	554	97.4

있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자살생각 정도

대상자의 자살생각,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가족기능의 평균은 70.17±10.97로 가족응집력은 36.37±6.21이며 가족적응력은 33.80±5.67이었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59.32±10.22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의 평균은 8.03±4.38로 나타났다.

<Table 2> Mean score for family function, self-efficacy and suicidal ideation (N=569)

Variables	Mean ±SD	Range
Family function		
Total	70.17±10.97	32~100
Family cohesion	36.37± 6.21	15~ 50
Family adaptability	33.80± 5.67	17~ 50
Self-efficacy	59.32±10.22	17~ 85
Suicidal ideation	8.03± 4.38	0~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자살생각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자살생각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가족기능은 대상자의 성별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52, p=.001) 여학생은 남학생 보다 가족응집력(t=-2.76, p=.003)과 가족적응력(t=-3.78, p=.001) 정도가 더 높았다. 가족기능 중 가족응집력만이 종교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있는 대상자의 가족응집력이 종교가 없는 대상자 보다 그 정도가 높았다(t=1.72, p=.043). 자기효능감은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t=1.72, p=.043), 21세 이상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20세 이하보다 그 정도가 높았다(t=-2.14, p=.017). 자살생각은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있는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낮았다(t=-3.48, p=.001).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자살생각간의 관계

대상자의 가족응집력(r=-.34, p<.001)과 가족적응력(r=-.29, p<.001)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 점수가 낮아졌다. 자기효능감과 자살생각 또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r=-.31, p<.001),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 점수가 낮아졌다. 자기효능감은 가족응집력(r=-.34, p<.001)과

가족적응력(r=-.2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 점수도 높아졌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family function, self-efficacy, and suicidal ideation (N=569)

Variables	X1 r(P)	X2-1 r(P)	X2-2 r(P)	X3 r(P)
Suicidal ideation (X1)	1			
Family function	Family cohesion (X2-1)	-.34 (.001)	1	
	Family adaptability (X2-2)	-.29 (.001)	.71 (.001)	1
Self-efficacy (X3)	-.31 (.001)	.34 (.001)	.29 (.001)	1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및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중재방안을 계획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일반적 특성에서 가족기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의 가족기능 정도가 남학생보다 높았다. 자기효능감 또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가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이는 남·녀의 성차로 간주될 수 있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서적이고 관계중심인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논리적이며 목적의식이 강하다(홍순정, 1998). 따라서 여학생은 정서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족기능이 남학생은 문제해결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서 가족응집력은 종교와 유의한 차이가 있어 종교가 있는 대상자들의 가족응집력이 더 높았다. 이는 종교가 가족생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간주된다(이원규, 2006).

자기효능감은 대상자의 연령과 유의한 차이가 있어 21세 이상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증가한다고 한 고경애와 정민정(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종교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종교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은 종교가 없는 대학생들보다 자살생각이 더 낮았다. 이는 종교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한 Robins과 Fiske(2009)의 연구와 자살생각을 예측변인으로 종교를 설명한 박현숙과 구현영(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종교가 청소년들에게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제공하여 자살생각이 감소되었을 것이다(이원규, 2006).

<Table 3> Difference of family function self-efficacy,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N=569)

Characteristics	Categories	Family function									Self-efficacy			Suicidal ideation		
		Total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Mean±SD	t/ F	p	Mean±SD	t/ F	p
		Mean±SD	t/ F	p	Mean±SD	t/ F	P	Mean±SD	t/ F	p						
Gender	Male	68.84±11.15			35.78±6.33	-2.76	.003	33.06±6.33			59.92±10.86			8.15±4.47		
	Female	72.10±10.44	-3.52	.001	37.28±5.92			34.87±5.47	-3.78	.001	58.46± 9.19	1.72	.043	7.85±3.86	.82	.207
Age	Below 20	69.74±11.44			36.15±6.38	-1.11	.135	33.59±5.94			58.61±10.10			7.78±4.32		
	Above 21	70.91±10.07	-1.22	.111	36.75±5.88			34.16±5.14	-1.20	.115	60.53±10.30	-2.14	.017	7.21±3.96	1.55	.065
Major	Humanities	71.45±11.40			37.02±6.24			34.43±5.97			58.66± 9.95			7.81± .29		
	Social sciences	69.68±10.50			36.01±6.45			33.67±5.18			58.75± 9.88			8.86±4.68		
	Natural science	68.00± 9.51			35.96±5.52	.92	.467	32.73±5.21			55.53±12.13			9.33±7.46		
	Engineering	69.17±10.74	1.13	.344	35.96±6.06			33.20±5.52	1.10	.361	60.49±10.65	1.20	.310	7.87±4.27	1.32	.256
	Life science	68.87±11.07			35.20±5.90			33.67±6.71			59.67± 6.99			7.93±4.19		
	Art and physical education	70.17±10.97			36.68±6.47			34.15±5.51			60.03±10.23			7.35±3.07		
Religion	Yes	70.86±11.30			36.79±6.25	1.72	.043	34.07±5.92			59.93±10.31			7.43±4.04		
	No	69.38±10.54	1.61	.054	35.89±6.13			33.48±5.35	1.27	.109	58.63±10.11	1.52	.065	8.71±4.65	-3.48	.001
Family history of suicide	Yes	68.60± 9.55			34.67±4.68	-1.08	.142	33.93±5.65			58.07±10.17			8.00±3.89		
	No	70.21±11.01	-0.64	.267	36.42±6.24			33.79±5.67	.09	.462	59.36±10.23	-0.48	.315	8.03±4.40	-0.03	.490

본 연구결과 가족기능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은 감소하여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자살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이는 자살생각과 가족기능과의 부적 상관관계를 규명한 Kwok과 Shek(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가족의 경직된 체계가 자살생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Carris 등(199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정서적 유대 및 결속을 의미하는 가족응집력($r=-.34, p<.001$)과 자살생각과의 부적 상관관계정도가 가족적응력($r=-.29, p<.001$)보다 높아 정서적인 요인이 자살생각에 탁월한 영향을 준다고 한 신민섭 등(1990)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민동일과 양정미(2006)는 가정의 역기능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청소년 자녀에게 타인과의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낮은 자신감, 부정적 신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도 어둡게 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여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가족기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송성자, 2000)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기능적일 때, 자살생각으로 발전할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한 박현숙과 구현영(2009)의 연구결과 또한 본 연구와 유사하다.

역기능적인 가족은 부적응적인 인간을 만들어 다양한 문제들을 형성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소외, 비판과 더불어 자살문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경애, 정민정, 2007). 따라서 기능적 가족을 형성하기위한 중재 방안은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자살생각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우울이 죽음의 한 유형인 자살행위를 예측하는 요인임을 지적한 Hegel, Dietrich, Seville 및 Jordan(200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손정남(2007)은 자살위험 집단이 부정적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진정, 긍정적 해석, 적극적 대처의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여 스트레스 관련 증상을 감소시켜 정신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민소영과 정승교(2006)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가족기능이 증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역기능 가정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음을 주장한 민동일과 양정미(2006)의 연구와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고경애와 정민정(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기능적인 가족은 가족구성원인 청소년이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도록 도울 것이며,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 생각을 감

소시키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를 토대로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방안에서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는 대상자들을 한 지역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기능 및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Y시에 소재한 일개 4년제 대학의 재학생 569명으로부터 자료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자살사고,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변수간의 관계는 t-test와 ANOVA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은 자살생각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족기능은 성별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중 가족응집력은 종교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살생각은 종교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토대로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대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해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중재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의 특성 및 지역,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자살생각과 관련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상자의 성별 및 종교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제언한다.

참고문헌

- 고경애, 정민정 (2007). 가족기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301-320.
- 김윤희 (1990).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혜영, 김영희 (2002).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생활과학연구논총*, 6(2), 125-141.
- 민동일, 양정미 (2006).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역기능과 자기효능감과 관계. *교육발전연구*, 22(2), 45-66.
- 민소영, 정승교 (2006). 간호학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간호학회지*, 15(3), 299-307.
- 민윤기 (2005). 대학생의 자살위험요인 지각과 자살생각 평가. *학생생활연구*, 31, 31-52.
- 박현숙, 구현영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완충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1), 87-94.
- 손정남 (2007).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에 대한 관별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6(4), 267-275.
- 송성자 (2000).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 법문사.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9(1), 299-314.
- 이원규 (2006).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 사회비평사.
- 이현지, 김명희 (200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무망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3), 243-264.
- 정혜경, 안옥희, 김경희 (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2), 107-206.
- 최명희 (2007). *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별 스트레스 신 체증상 및 자기효능감*.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원도.
- 통계청 (2008). 사망원인통계연보. <http://kostat.go.kr>.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청소년심리학* 서울 : 교육과학사.
- 홍순정 (1998). *여성심리학 ; 여성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 교육과학사.
- Bandura. (1997).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 Barber, B. K., & Erickson, L. D. (2001). Adolescent social initiative: antecedents in the ecology of social connections. *J Adolesc Res*, 16, 326-354.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 Consult Clin Psychol*, 47, 343-352.
- Carris, M. J., Sheeber, L., & Howe, S. (1998). Family rigidity, adolescent problem-solving deficits, and suicidal ideation: a mediational model. *J Adolesc* 21(4), 459-72.
- Hegel, M. T., Dietrich A. J., Seville, J. L., & Jordan, C. B. (2004). Training residents in problem-solving treatment of depression: a pilot feasibility and impact study. *Fam Medicine*, 36, 204-208.
- Kwok, S. Y., & Shek, D. T. (2009). Social problem solving, family functioning,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J Adoles*, 44(174), 391-406.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f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V: theoretical update. *Fam Process*, 22(1), 85-98.
- Olson, D. H., David, H., & Barnes, H. L.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 model. *Fam Process*, 56(2), 438-447.
- Pajares, F. (1997). Current directions in self-efficacy research. In M. Maehr & P. Pintrich (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10, 1-49.
- Robins, A., & Fiske, A. (2009). Explaining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ness and reduced suicidal behavior: social support rather than specific beliefs. *Suicide Life Threat Behav*, 39(4), 386-95.
- Sherer, M., & Maddux, J. E. (1982). The self efficacy scale: contraction and validation. *Psychol Rep*, 51, 663-667.
- Steinhausen, H. C., & Metzke, C. W. (2004). The impact of suicidal ideation in preadolescence,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on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psychopathology in young adulthood. *Acta Psychiatr Scand*, 110(6), 438-445.

Effect of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acy on Suicidal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Kim, Hyo Jeong¹⁾ · Jung, Mi Ae²⁾

1)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An Dong Science College

2) Nurse, Health Service Center, Dong 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acy on suicidal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Method:** The study was designed 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measures of family function, self-efficacy and suicidal ideation. Data collection was done between April 1 and April 30, 2009 with 569 university students.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 The score of family function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suicidal ideation. The score of self-efficacy also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suicidal ideation. Family function in university students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gender. Family cohesion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religion. Self-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gender and age. Suicidal idea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religion.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acy influence suicidal ideation. A strategy for improving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acy should be identified to decrease suicidal ideation.

Key words : Family, Self-efficacy, Suicid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yo Jeong

Department of Nursing, An dong Science College

Gyo-ri, Seohu-myeon, Andong-si, Gyeongbuk, 760-709 Korea

Tel: 82-54-851-3567 Fax: 82-54-852-9907 E-mail: rellakim@hanmail.net